



## 光明病院

### 病院沿革

- 1981. 11 의료법인 광명의료재단 설립 승인
- 1983. 12 의료법인 光明病院 개원
- 1984. 2 치과·안과·신경외과·이비인후과 주  
가 개설
- 1984. 10 연세의료원과 자매결연
- 1984. 11 인턴 교육기관으로 지정
- 1985. 5 두부 전산화 단층촬영장치 도입 가동



金學悅 이사장

### 15개 診療科에 3백病床의 병원

서울 구로공단에서 안양천을 건너는 다리 하나만 넘으면 바로 경기도 광명시. 광명시는 최근 철산동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부터 서울과 인접한 장점 때문에 각광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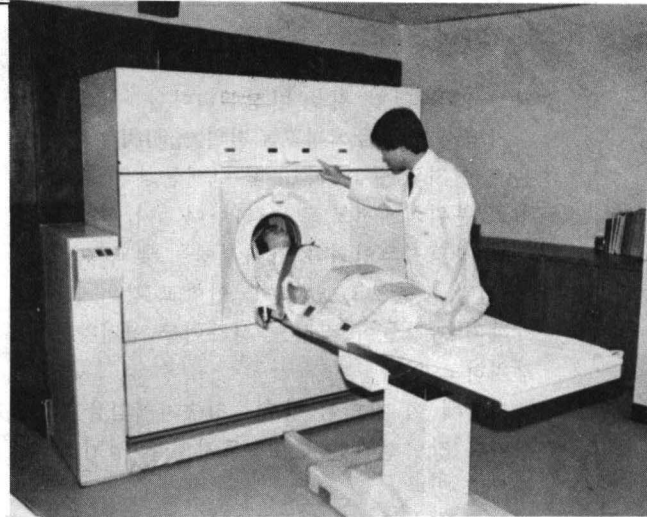
의료법인 光明病院은 광명시 중심지인 철산동 아파트단지 가운데 자리잡고 있다. 아직 아파트공사가 한창인 철산동 가운데를 지나면 유난히 흰 건물이 시선을 끈다. 이곳이 바로 20만

광명시민의 건강을 돌보고 있는 이지역 최대 의  
료기관인 光明病院이다.

光明病院은 정부의 의료취약지역 해소계획에  
따라 OECF 차관 등의 재원으로 설립됐다. 지  
난 1981년 「의료법인 광명의료재단」이 설립되  
어 정부의 승인을 거쳐 1983년 12월10일 현재의  
위치에서 개원, 진료에 들어갔다. 개원당시 허  
가병상은 1백50병상으로 내과, 외과, 정형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신경정신과, 비뇨기과, 마  
취과, 임상병리과, 방사선과, 건강관리과 등 11  
개 진료과목으로 시작됐다. 이어 5·6병동을 추  
가로 열고 지난해 초에는 치과, 안과, 신경외과,  
이비인후과를 추가 개설함으로써 현재 3백병  
상, 15개 진료과를 가진 「의료법인 光明病院」  
의 모습을 갖추었다.

### 지역사회 핵심 医療機關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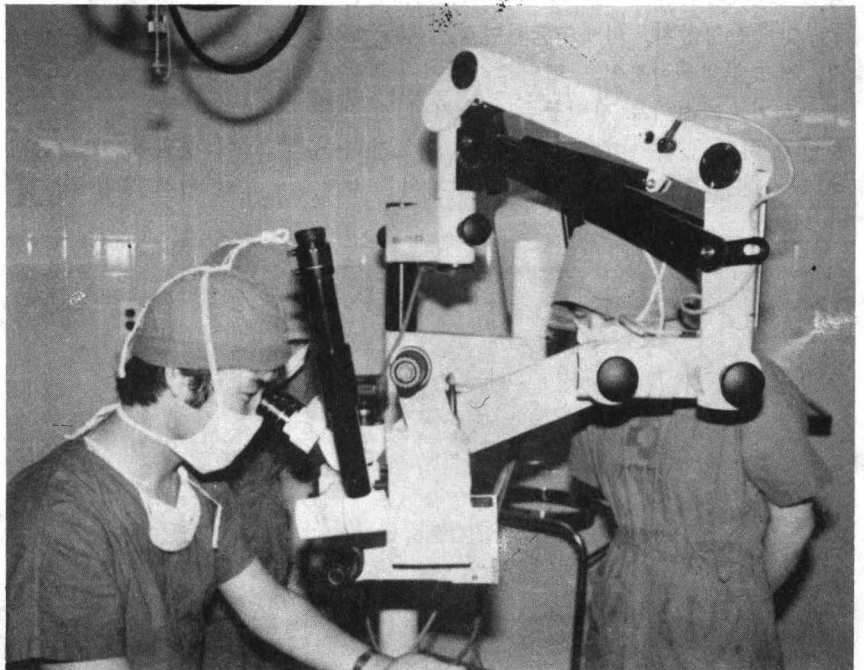
光明病院은 정부의 의료취약지역 해소시책에  
발맞춰 설립되었기 때문에 「보건의료에 관한 연  
구개발 및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이 병원 金學悅이사장 (내과)  
은 병원운영의 기본방침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 頭部CT스캐너

있다.

『우리 광명병원은 광명시의 발전 계획 추진  
에 맞춰 지역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드리고자 과감한 투자를 하여 외국의 우수한 의  
료장비를 도입 설치, 환자진료에 만전을 기하  
고 있습니다. 또 의료진 및 의료종사원들은 한  
결같은 정성으로 친절하게 지역주민들의 질병  
을 돌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병  
원은 이 지역사회에의 핵심 의료기관으로서 책임



◇光明病院은 최신의료장비  
를 많이 도입했다.  
사진은 현미경 미세수술  
장면.

과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지역사회 의료기관으로서의 光明病院의 역할은 광명시의 주요 기관 및 단체들과의 유기적인 협조 분위기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 병원은 지난해 광명시노인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노인들의 건강을 돌보고 있다. 노인학교 강의에 진료각과의 과장들이 직접 참석하여 노인건강관리를 강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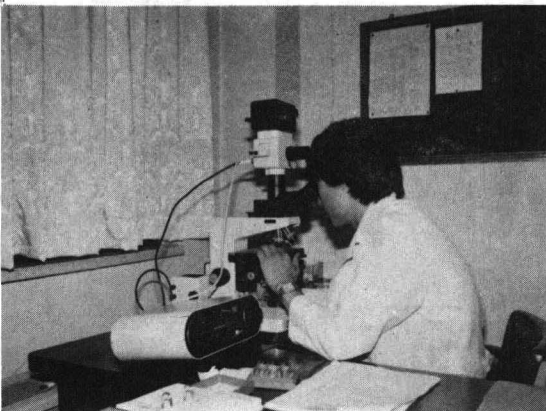
이밖에 이 지역이 상습 침수지역임을 감안, 해마다 장마철이면 무료진료사업을 정기적으로 펼치고 있다.

光明病院 가족들은 이 지역 유일한 종합병원의 일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그것은 그만큼 이 병원이 이 지역사회에, 또 주민 건강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기여도가 크다는 것을 말해주는 한 단면이기도 하다. 光明病院 가족은 광명시라는 신도시의 주민건강은 「우리 손으로 지키겠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 의료장비에 1백60만달러 투입

光明病院은 진료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1백60만달러를 투입 최신훈리 장비 및 기기들을 도입, 가동하고 있다. 전산화 두부단층촬영장치, 미세수술현미경, 혈구계산기, 자동혈액분석장치, 현미경사진기, 고압산소치료가, 최신훈리 장비들은 효율적인 진료를 뒷받침 하고 있다. 이밖에도 몇몇 의료장비들이 현재 도입중에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

◇현미경사진촬영기



◇신생아실의 인큐베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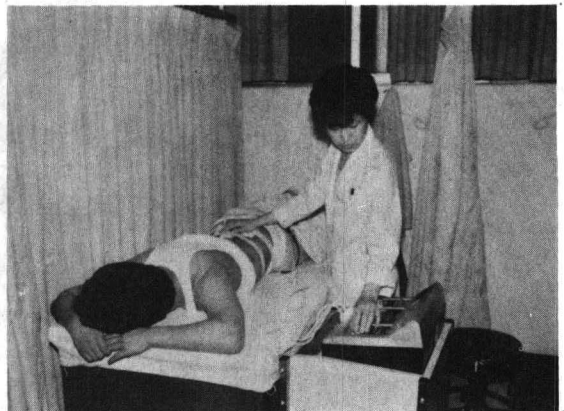
이다.

光明病院은 정확히 광명시 철산3동 389번지에 자리잡고 있다. 1천5백평의 대지에 연건평 2천2백70평 규모의 현대식 7층 건물의 이 병원은 주위가 아직 신도시개발지역이기 때문에 환경미화에 매우 신경을 쓰고 있다. 직원들 친목단체인 원우회를 중심으로 수시로 병원환경미화에 앞장서고 있다. 아직 주위에 아파트가 신축되고 있는 점을 감안, 병원주위를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 모두가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다고 한 사무관계자가 귀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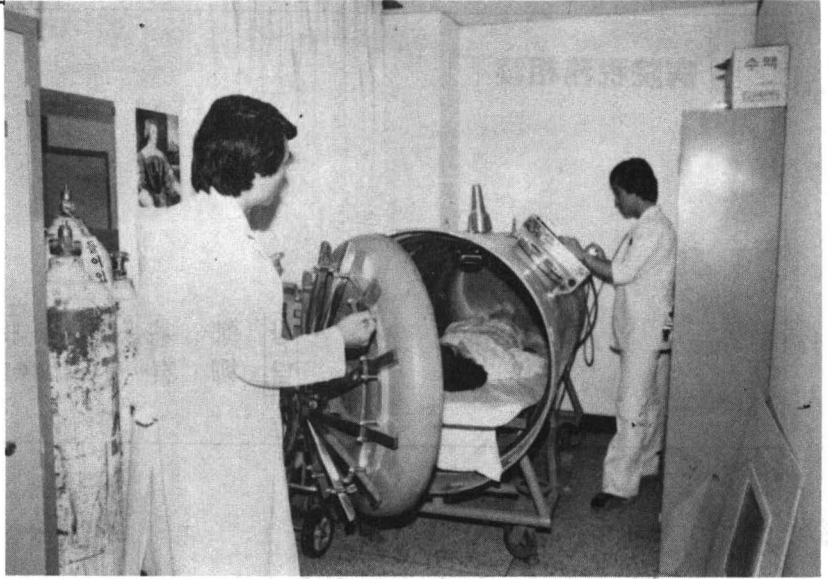
현재 光明病院의 가족은 전공의 2명을 포함한 의사 20명 등 모두 2백2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병원이 지난 한해동안 진료한 실적을 살펴보면 외래 9만5천8백82명, 입원 3만8천7

◇물리치료실



◇光明市는 주택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연탄가스 중독환자들이 많다. 응급실의 고압산소치료 장면.



백 8 명으로 총 13만 4 천 5 백90명의 환자에 달하고 있다. 이들 환자들은 지역적으로 광명시를 비롯 서울의 구로, 시흥, 고척동 등의 광범위한 지역의 주민들이다.

### 地域社会 일원으로 발전을 기약

光明病院은 신설병원인 만큼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직원상호간의 친목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지난해 10월에 발족한 직원 친목조직인 「원우회」는 전 직원이 가입되어 새마을금고 등 상호회는 물론 등산, 낚시, 축구 등의 동호(同好)모임을 활발히 갖고 있다. 특히 축구팀은 이 지역 다기관과도 친선경기 등을 가짐으로써 지역사회협력에도 일익을 하고 있다.

光明病院은 최근 직원들의 무주택해소를 위해 이 지역에 새로 건립되는 아파트를 알선해주는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곧 무주택직원이 해소 될 것이라는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같은 병원측의 직원사기 진작책에 따라 직원들은 스스로 병원 환경미화 등 쾌적한 환경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光明病院은 지난해 10월 연세의료원과 자매결연을 맺고 인턴 등의 의료진 인적교류는 물론 의료정보를 교환하여 있다. 이는 앞서가는 병원으로의 光明病院이 추진하는 노력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최신의 지식, 친절봉사 등 실천하는 병원이 되고자 노력합니다. 우리 병원 가족 모두에게 기회 닿는대로 「실천」을 강조합니다.』

개원당시부터 이 병원을 이끌고 있는 金學賢 원장(정형외과)은 「실천하는 병원」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한다.

신도시 광명시는 많은 발전의 요소를 지니고 있다. 이미 들어선 아파트만 해도 6천 세대에 현재 4천세대의 아파트가 건립중이다. 또 약 2만세대의 아파트가 들어 설 계획에 있다고 한다.

光明病院은 이같은 광명시 발전계획과 함께 지역사회 의료기관으로 주민건강을 돌보는 첨병으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직원들이 참여한 병원미화작업

